

고등학생의 학교시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 현 정¹⁾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입시 준비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현상학적 관점을 기초로 실제 이들이 겪는 시험관련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살펴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1년 6개월 간, 한 고등학생의 시험관련 체험에 대한 자료수집(구성)과 분석, 해석을 시도한 결과, 고등학생이 체험한 학교시험의 구체적 맥락은 “‘울음’, 그리고 ‘웃음’, ‘무념’과 ‘상념’ 사이, ‘차단’ 속에서 ‘연결’을 찾는, ‘확인’하고 ‘재확인’하고도”이었다. 이때 고등학생의 울음은 ‘부담, 미움, 불안, 압도, 소홀’을 의미했고 웃음은 ‘격려, 진정성, 위로, 존중’을 뜻 했다. 무념은 ‘회피, 폐쇄’, 상념은 ‘불안, 걱정, 고민’이었고 차단은 ‘(에너지)저장, 무시, 자폐, 이기’인 반면, 연결은 ‘(시공간)횡단, 살아있음, 접촉’으로 나타났다. 확인은 ‘비교, 우위, 불안’이었고 재확인은 ‘비교, 불안, 우월, 위로’이었다. 실존체 역시 서로 연쇄적으로 관련되었는데 이들의 ‘경직’, ‘자폐적’ 신체성은 ‘침범’과 ‘차단’된 관계성과 연결되었다. 시공간(lived time/lived space)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지금의 결과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불안’, ‘촉박’, 기대와 희망을 잘라버리는 부정적 자각이 지배적이었다. 간혀 펼칠 수 없는 ‘구속’된 공간성(lived space)이 부정적 실존의 모습이었고 체험된 물질(lived material)은 ‘매개’와 ‘대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개선의 실마리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정적 실존 속에 긍정적인 의미도 존재했음에 근거하여 고등학생이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긍정성, 안전감을 찾을 ‘관계’를 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불안, 제한’ 등 중복,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의미를 지양하는 방식의 교육적 실천, 즉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금-여기’를 청소년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더 나은 상황과 삶’을 만들기 위해 ‘탈주’하는 모습을 보인 고등학생들에게 기여(commitment)하고 탐험(explor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성인들이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겨루어 이기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깊이 숙고하는 태도변경과 실천적 고추가 필요하다.

주요어 : 청소년, 고등학생, 입시불안, 경쟁, 실존, 현상학적 연구

1) 교신저자 :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E-mail: hjnew0913@hanmail.net)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얼마 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몇 주 전부터 배가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찬다고 호소했다. 배도 살살 아파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흔한 과민성장증후군이 의심되었다. ... (중략)... ‘고3’이었다. “저녁은 거의 컵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으로 때워요.” “아니, 아무리 학원이라도 저녁식사 시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원에 따로 식사 시간은 없어요. 쉬는 시간에 알아서 먹어야 해요.”

필자(의사)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약으로 낫기 어려운 병이며 생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원에 도시락을 싸가라고 권유했다. 학생은 수궁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오마이뉴스, 2020).

전염병이 창궐하는 2020년, 과민성장증후군을 앓는 고 3인 위 학생은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아파서 쉬는 사이, 편히 밥 먹는 사이, 학원을 못 가는 사이, 남이 앞서 나갈까 불안한 까닭이다. 그 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이 떨어질까 우려 탓이다. 즉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2019)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경쟁은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단어를 ‘입시’와 연관 짓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민인 학업, 그 학업으로 인한 부담은 경쟁체제 속에서 더욱 부각된다(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 2002;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김성봉, 오옥선, 김선미, 2011).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지성인’을 키우는 대학의 진학률이 80%를 훌쩍 넘어선다니 우리나라 교육열은 과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만하다(김안국, 임연, 최지희, 유한구, 김기현 2011).

그렇다면 정말 학생들은 지성인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적인 능력을 갖추면 지성인이 되는가? 지성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장현(2016)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인성지수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다”고 성토했다. 최상위인 교과성적과 최하위라는 인성지수, 그 극과 극의 통계(이장현, 2016), 수치 이전의 현상을 포함해 현재의 고등학생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이장현(2016)의 주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선행연구와 미디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높다(김성봉 외, 2011; 박영주, 정혜경, 2002; 연합뉴스, 2019)고 보고한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사회학습을 통해 알아버린 고등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불안해졌다(연합뉴스, 2019). 미래에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때문인지 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 진입가능성이 큰,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한다. 서열 높은 대학의 진입을 위한 고투는 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시간과 자본을 들여 공유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 시험 준비의 장(場)이

되어 버렸다. 유연하고 다원화된 평가를 조언했던 학자들(김성봉 외, 2011)의 선의와 달리, 현실에서의 복잡해진 평가들이 학생들의 부담이 된 지 오래다. 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 외에 과목마다 주어지는 수행평가를 지속적으로 치러야 한다. 시험, 평가·화 된 거의 모든 것이 성적으로 수렴되기에 학생들은 성적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친구들보다 못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팍팍한 청소년의 삶이다.

그 사이에 교사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우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장현(2016)은 자기논리, 감성부족, 단편적 사고가 팽배한 현재의 상황에 학교의 책임을 강조한다(이장현, 2016).¹⁾

아닌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적응과 불행이 입시와 관련된 학업사태에 있음을 보고한다(김성봉 외, 2011; 김명자 외, 2002; 박영주, 정혜경, 2002; 이은희, 2009; 신현숙, 송종화, 김현주, 2005). 소수만 선택받는,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은 타인들 간 갈등을 일으켜 관계적 동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Porges, 2011). 안전감 없는 삶은 청소년을 비

롯한 모든 인간에게 심리행동적 어려움과 불행을 야기한다(신현정, 2019; Cozolino, 2006; Geller & Porges, 2014).

청소년 자살률이 OECD 최고점을 찍고 청소년 자해가 점점 늘며(국민일보, 2020), 인성교육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아이들의 인성이 나아졌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이장현, 2016),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와 명문대학 진학이 목표가 된 학교교육”(황갑진, 2006)에 따른 심각한 청소년 현실(국민일보, 2020; 연합뉴스, 2019)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의 대상관계가 입시 성공을 위한 기능적, 도구적 연관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나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현재의 고등학교는, 시험성적에 의해 구획이 나뉜 내신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명문대 진학학생의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쟁을 부추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²⁾ 설령 학교가 그런 목적과 지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니(황갑진, 2006) 악순환이다. 시험과 평가에 쪼든 학생들의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조보행, 2013; 이동귀, 함경애, 배병훈, 2016; 임성은, 20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손자영, 2020). 힘들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면,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1) 이장현(2016)은 “지금의 학교 교육은 지성만을 강조하고 논리만을 중시한 교육이다. 이는 감성 부족과 자기논리만 강조하고 단편적 사고가 형성되어 종합적 사고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기적 인물 양성하여, 사회분열과 국가 경쟁력 약화시키고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학교에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인성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성과는 미흡했다.” 라고 피력했다.

2) 학교에만 책임을 몰 수 없다.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사회, 담론 모두 청소년의 불행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실존은 입시와 관련된 생활세계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입시, 시험과 관련된 생활세계인 학교는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실존적 세계임에 틀림없다.

구경만 하고 싶지 않다면, 시험관련 삶을 사는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더 많이 힘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 필요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등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체험³⁾을 이해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발달적, 존재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파도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짝박한 청소년의 실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힘들음으로부터 벗어날 변화의 실마리는 없는지 찾아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쟁’이라는 선견을 묶어둔 채, 시험 준비가 일상이 된 고등학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세계에서 드러난 ‘경쟁적’ 역동의 복잡다단함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의 이유는 연구란 모름지기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삶의 개선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12).

3) COVID-19로 인해 대면개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고 3의 개학은 대입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생이 입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프랑스는 2020년에 치를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 Baccalauréat)를 COVID-19 때문에 취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때문이라 해도 대입시험 취소가 가능할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수용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체적 맥락 속에서 고등학생이 살아내는 시험관련 체험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고등학생과 입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해 수렴되어 있는 경향이 짙다(황갑진, 2006). 대학입시의 성공은 곧 명문대학 진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좋은 대학”의 입학자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남보다 잘해야 한다. 기능적 능력 함양의 압박감은 타인과의 비교가 당연시 되는 경쟁을 강요한다. 이런 양상은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연결된다.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비교와 경쟁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를 바로 앞 둔 고등학생 시기이다.⁴⁾ 고등학생의 대입성패는 한 인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직업의 서열화가 경제적, 계층적 서열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사람들은 청소년의 입시성패에 연연한다(강길선, 2020).

4)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청소년들의 ‘학부모 부담, 방과 후 학습활동인 학원 참여 시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시간의 양은 OECD 국가의 평균 6배로 ‘사교육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오마이뉴스, 2020).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 특히 입시를 바로 앞둔 고등학생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김성봉 외(2011)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배우는 교과내용이 너무 많고, 지식위주의 재미없는 것,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가 무섭게 교과진도가 일사천리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수능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형 수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교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한다. 공부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삶에서도 소외된다.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된 청소년의 무미건조함은 신체적 무감각으로 연결된다(조용환, 2019; van der Kolk, 2016). 신체의 감각을 느끼지 못 하면, 위로가 되는 자신의 방식을 찾는 인간이기에(van der Kolk, 2016) 신체자극 추구가 자해로 번지기도 한다(손자영, 2020; Oaklander, 1978; Porges, 2011; van der Kolk, 2016).

사실,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불안에 시달린다. 성적이 떨어질까 봐, 성적이 안 오를까봐 불안한 청소년들은 반 정도가 일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연합뉴스, 2019).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 청소년은 성적담론에서 배제되면서 ‘철딱서니 없는’ 학생으로 낙인찍힌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불행지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살 역시 청소년 사망의 1위를 차지한 지 오래지만(조보행, 2013), 더 큰 문제는 불행지수, 자살 및 자해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이동귀 외, 2016).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생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단선형의 성적만이 아닌 교과를 비롯한 담임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관찰이나 학습수행과정 혹은 다양한 활동 등의 영역에서

좀 더 유연하고 다원화된 질적 평가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성취경험을 갖도록” 해야 함이 강조된다(김성봉 외, 2011). 뿐 만 아니라 “단순 성적 서열에 의한 패배자가 아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배움을 통한 기쁨과 성장동력을 스스로 찾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학습의 주체로서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김성봉 외, 2011)고 처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처방이 현실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일까? 고등학생들이 겪는 시험관련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2. 고등학생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살, 비자살적 자해는 증가하고 있다. 자해와 관련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담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8년 현재, 7배나 급등했다(손자영, 20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외에도 아이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등으로 힘들어 한다(임성은, 2019).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안 정부가 2007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살자 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이상을 보고하는 학생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임성은, 2019). 무엇보다 15-19세 청소년의 51%가 성적 및 진로 때문에 자살생

각을 한다(조보행, 2013)는 보고는 이들에게 시험과 입시가 주는 압박감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학문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취업을 위해 대학을 선택하게 된 현대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무기력해진다(이영남, 2019). 안타깝게도 무망감이 자살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은 알려진 지 오래다(Haney et al., 2012).

현실의 암울함 때문인지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진로와 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학생들 상당수가 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찾지 못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고등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심리적 문제는 ‘학업성적’, ‘진로설계’, ‘대학진학’, ‘능력부족’, ‘취업’으로(이영남, 2019), 불안한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성적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부족을 탓하며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로고민 의 의논상대인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모순되게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영남, 2019) 역시 위로와 지지의 체계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고등학생들에게는 안전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부정적 자아감과 더불어 학생들의 우울을 더 가중시켰고(배주미, 2000) 분노조절의 실패 등 공격적 모습으로, 외현화 된 어려움의 호소로 이어지기도 했다(신현정, 2009).

한편,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획일적 ‘입시교육’ 역시 학생들의 삶을 입시에만 몰두시켜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비정상적인’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김성봉 외, 2011). 아이들은 학교

의 교육적 지향인 교훈과는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교육’의 본래 지향은 소외시킨 채, ‘사회화’된 인간으로, ‘세계-내-존재(being-in - the world)’로서 사회체제에 순응해 심리적 생생함을 잃은 채 그 안에서 안주하는 길을 찾도록 길들여진다(조용환, 1997; Heidegger, 1998).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시험과 관련된 삶의 체험을 맥락적으로 기술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의 관점에서 드러난 맥락과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관점을 활용한 본 연구는 한 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시험관련 체험에 주목한다. 질적 연구,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사례성을 중시하는데(조용환, 2015),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실존의 모습 때문이다. (상호)주관적인 삶을 사는 인간은 객관적 사실(fact)보다는 현사실(facticity)을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조용환, 2012).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지향, 즉 의식(noesis)-대상(noema) 간 상관작용(Husserl, 1938)은 현사실의 토대가 된다. 지향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실존적 인간이 실존의 장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 짓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간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시험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실존하는지 ‘의식’-‘대

상' 간 상관작용인 지향성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생이 지각하는 시험체험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일은 시험과 관련된 고등학생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연구참여자

고등학생 재윤이⁵⁾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이다. 성적은 현재 중간 혹은 중상 정도이고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을 다녔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보습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학원대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공부를 보완한다.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다. 한 학년에 80명,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친구들이 서로의 존재를 안다. 사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의 공학이기에 학생들은 학원을 가기보다는 어울려 팀을 만들어 과제를 하고 활동도 한다. 자주 모여 수행평가 준비를 하며 공부도 같이 한다.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매운 마라탕도 즐기는 보통의 고등학생이다. 연예인 '아이유', '김수현', '태연'을 좋아하고 BTS나 '마마무'의 노래가 나오면 흥에 겨워 그 춤을 따라하는 청소년이다. 재윤이는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카톡, 메일,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확인하며 웹툰, 유튜브 등을 즐긴다.

재윤이의 학교선생님들은 열정적이다. 학생

들에게 관심도 많고 아이들의 주도성과 권리를 지켜주려 노력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등 스스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다. 재윤이는 아침 8시에 등교를 위해 집에서 출발하면 집에서 저녁을 먹지 못 하는 날이 일주일에 2, 3일은 되었다. 재윤이는 하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행과제를 하는 등의 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⁶⁾

재윤이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성적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고 친구들과 사이에 날 선 경쟁과 비교가 힘들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갈 수 있을까 불안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어른들의 현실적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없이 작아지고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재윤이는 많이 울었고 일기에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 없이 쏟아놓았다.

2. 연구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구성⁷⁾ 기간은 2019년 2월부

6) COVID-19 때문에 2020년에는 실시간 화상강의를 하여 학교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나 동아리 활동, 회의도 상당 부분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7) 신물질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질적 연구를 바라볼 때, '자료수집'보다는 '자료구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조용환, 2019). 수집은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모으는 성격이 강한데 반해 구성은 자료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료의 능동적 성격, 연구자의 겸허한 자세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5) 질적 연구의 윤리 상,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한다.

터 2020년 7월까지다. 재윤이는 연구자의 가까운 지인으로 연구자가 참여관찰, 심층면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 참여자였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1시간 이상씩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존재를 통해 시험관련 체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참여자가 회로애락을 방어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라포 형성이 중요했고 그 맥락을 자세히 아는 연구의 토대마련이 시험관련 미묘한 역동을 드러내는 데 필요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춘기의 청소년, 성인과 다른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의 삶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연구자는 참여자 재윤이와의 대화, 참여관찰을 통해 시험, 성적관련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노력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판단중지’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었다. 자칫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즉 입시나 시험에 대해 갖고 있던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참여자의 체험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지 성찰과 반성으로 깨어있어야 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려는(make familiar strange)”(조용환, 1999) 질적 연구자의 자세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따로 적어 놓았고 ‘괄호치기(epoche)’의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장기간(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다른 고등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

으면서 연구자의 선견을 내려놓는, 개인적인 사유의 필침이 아닌 상호주관적인 해석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했다.

참여자의 일화, 참여자의 속마음을 적어 둔 기록, 학교시험관련 자료, SNS나 웹을 통해 공유되는 글 등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노출할 수 있는 정도만 연구자에게 공유하였고 연구로서의 공개 여부는 참여자의 허락을 받았다. “생활세계(Lebenswelt)가 현상학에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만큼(van Manen, 1990) 생활세계는 중요하다. 실존적 세계인 생활세계에서 참여자가 겪는 일화는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의식-대상 간의 지향성에 따라 시험관련 일화로 구성된 자료가 고등학생의 생활세계의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현상이 ‘있는 그대로’ 기술되어야만 했다. 즉 제대로 기술하고 분석하며 해석해야 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생활세계의 일화를 중심으로 주제를 적어나갔고 그 주제 속에서 참여자가 드러내는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의미가 드러나는 장(場)의 공통성에 주목하였다. 분석은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진 참여자의 지향, 의미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결하였다. 의미와 주제 간 전경과 배경 간 교차를 통해 의미가 일어나는 맥락을 재구성하였고 맥락의 충위를 조정하는 것도 분석에서 중요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이라는 실존체, 즉 ‘체험된 몸(lived body)’,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time)’,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가 상호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일화 속에서 찾는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를 수행하였다. ‘교차(chiasma)’라는 거듭된 과정을 거쳐 학교시험이라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고등

학생들의 행위, 감정이 재운이라는 한 고등학생의 체험을 통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시험관련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답게 내부적 심층성을 지향하였기에 구어체 중심의 ‘참여자의 맥락 속 의도가 포함된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로 묘사되었다(조용환, 1999; Wolcott, 1992).⁸⁾ 이는 ‘설명’보다는 ‘이해’를 도모하는 생활세계적 맥락의 발현, 즉 현상학적 연구가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감적, 대화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상호주관적 입장에서 참여자 체험의 보편성과 독특성을 아는 일도 필요했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의 직접성, 구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은 물론 현상학적 관점에서 참여자의 독특한 체험이 갖는 ‘전이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였다. 따라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 10회, 1시간 정도씩 인문계고 2학년 고등학생 두 명(가영, 소현)과 시험, 학교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위치와 내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가영이와 소현이도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이었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염려하는 고등학생이었다.⁹⁾ 이들과의 상호주관적 교차

는 삼각검증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의 내부자적 관점에 입각한 맥락적 기술, 현상학적 글쓰기에 집중하였다. ‘현상학적 환원’을 위해, 고등학생이 겪은 시험체험의 본질을 알기 위한 ‘자유변경(free variation)’을 위해 고등학생의 체험은 맥락 속 내포된 의미를 기반으로 실존체와 지각된 계슈탈트에 대한 문질빈빈(文質彬彬)으로 논의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중요 가치이자 자본주의의 주요 논리인 경쟁의 담론이 현재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에게 어떤 모습으로 연관되는지,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입시를 거쳐야 하는 고등학생의 실존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학문이 실제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 문제를 숙고하는 질적 연구자의 해석’(조용환, 1999; Wolcott, 1992)을 통해 학문적, 실제적, 사회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일부 완성된 글은 참여자는 물론 교육과 질적 연구의 형식을 사는 연구자들, 학생들과 함께 공유되었다. 공감과 토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고 반박하는 이 타당·화 과정은 고등학생의 시험과 관련된 삶의 향방에 대한 ‘해방적 태도’를 갖추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었다.

8) 이는 Wolcott가 Bradely라는 한 청년의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한 ‘기술 중심의 질적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9) 본 연구에서, 적지 않은 대화(면담)를 하였지만 가영이와 소현이를 주요 참여자로 삼지 않은 까닭은 한 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시험관련 체험의 구체성, 심층성을 더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세계-내-존재’(Heidegger, 1998)인 인간의 현상학적 지향과 자

유변경을 시도하는 데에 “사례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조용환, 1999; Wolcott, 1992)는 학자들의 사례성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가영이와 소현이의 이야기는 본 연구의 배경으로, 때로는 전경으로, 또한 삼각검증과 상호주관성 교차의 매개로 본 연구에 생생히 살아있다.

IV. 한 고등학생의 시험체험 이야기

여기에서는 재운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이 살아내는 시험관련 맥락을 살펴보았다. 단어가 담은 복잡한 맥락은 상반, 중첩된 복잡한 형태의 역동으로 드러났다. 맥락은 고등학생들의 행위와 감정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지각에 기반 해 기술되었다.

1. ‘울음’, 그리고 ‘웃음’

재운이 친구들은 시험 상황에서 울고 웃었다. 그런데 울고 웃음은 시험을 잘 보면 웃고, 시험을 못 보면 우는 것 이상의 훨씬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우선, 아이들이 시험기간에 우는 까닭은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관계’로 인한 서러움 때문이었다. 재운이가 말하는 친구, 정희의 일화를 들어보자.

<1>

재운: 정희도 시험기간이라 여유가 없었나봐. 시험기간에, 엄마한테 속이 부대껴서 아침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계속 밥을 먹으라고 하셨나봐. 밤에 잠 못 자고 아침밥이 먹히겠어?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시니까...

연구자: 그렇겠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재운: 정희는 고기비계는 안 먹거든... 저녁에도 입맛이 없었나봐. 그래도 엄마가 하도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저녁밥

을 먹으러 방 밖으로 나갔대. 식탁에 삼겹살로 만든 제육볶음이 있더라. 별말 안 하고 몇 순가락 뜨고 방으로 왔는데 기분이 무척 안 좋았다 하더라구.

연구자: 그랬구나.

재운: 근데 아침에도 엄마가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해서 식탁으로 갔더니 죽이랑 또 제육볶음이더라. 그래서 열 받아서... 정희가 아침 안 먹고 학교 왔다. 그 얘기 듣고 처음에 내가 ‘야! 엄마 속 상하셨겠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상황을 상상해보니 정희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구.

연구자: 정희가 왜 그랬을까? 너는 어떤 점이 이해되는데?

재운: 우선 시험이라 여유가 없는데다가... 아침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비계 싫어하는 것을 엄마가 알면서도 연속적으로 차려놓는 것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아무튼 시험기간에 여유가 없으니 뻘죽해지긴 해.

시험기간에 특히 고등학생들은 ‘예민하고 여유가 없다’고 한다. 시험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한다. 평소에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지 않는 학생들도 시험기간에는 밥을 새거나 잠을 줄여 공부한다. 재운이에 따르면, 잠을 잘 못 자 입맛이 없던 정희는 속도 부대끼고 음식을 즐길 시간적 여유도 없었는데 연속적으로 식탁에 차려지는 돼지비계 제육볶음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밥을 굶는 자신이 안쓰러워 그랬을 거라는 엄마 마음을 모르는 바

는 아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아서 슬펐다. 자신이 싫어하는 비계를 굳이 식탁에 차려놓는 엄마가 야속했고 내키지 않아도 밥을 먹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엄마가 알미웠다. 엄마가 정말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었다는 사실로 엄마 마음이 편한 건 아닌가 뻔죽해졌다. 재운이는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이 시험기간에 특히 예민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시험기간에 왜 예민해지는가? 재운이는 고등학교 시험을 망치면 “이번 생은 망친다”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떠돌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운다고 한다.

<2>

재운: 시험기간 동안 운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닌가봐. 지연이도 울었다고 하더라고.

연구자: 왜 우는데?

재운: 힘드니까...

연구자: 응... 그렇구나. 근데 애들은 어떻게 힘들었을까? 공부가 어려워서? 아니면 시험범위를 다 못 해서?

재운: 그런 것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시험 하나하나에 엄청 난 부담을 느끼지. 옛날에는 대학에 안 가는 사람도 있었고 꼭 공부에만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은 공부 아니면 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시험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고...(말끝을 흐림)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매달려. 어떤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대입 성적이라고도 말씀하신대. 성준이 부모님이 고1 중간고사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셨나봐. 부모님의 그 말 때문에 성준이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고1 때 중간고사를 기대만큼 못 봤고 좌절했는데... 그 좌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현실적 자극을 주려는 부모님의 말씀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성적이 나아지지 않으니깐 부모님 말씀하신대로 될까 엄청 불안해 해. 부모님을 엄청 싫어하더라고.

독려 차원에서 한 성준이 부모님의 노력은 모순되게도 성준이의 용기를 꺾었다. 반복되는 부모님의 자극 때문에 “부모님과 말하기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직면은 오히려 원망이 되었다. 의도한 부모님의 마음과 수용하는 아이 마음의 접점이 달랐다.

한편, 지연이는 “힘들어서” 울었다고 재운이가 말한다. 지연이의 ‘힘듦’은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촉박한 시간과 방대한 공부의 양과 무게는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친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모순적 현실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시간이 아쉬웠고 시험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숨 막혔고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몸이 불편했고 점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뤄야하는 관계가 아팠다. 친

구들보다 시험을 잘 봤을 때 또는 못 봤을 때 야기되는 “친구들이 미워지는” 감정도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사교육에 무장한 아이들과 경쟁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이들을 짓눌렀다. 또한 과목마다 쏟아지는 과제와 수행평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치는 시험에 압도된 아이들은 “힘들다”를 입에 달고 다니게 했다.

재윤이는 등급의 변화를 체험한 날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재윤: 수학등급을 며칠 전 확인했었는데 며칠 후 방학식 즈음해서 수학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셨어.

연구자: 무슨 일인데?

재윤: (울먹거리며) 선생님이 미안해하시기는 하셨는데... 석차를 매기는 중에 한 명이 누락이 되어서 내 앞에 그 친구가 서게 되면서 내 등급이 하나 뒤로 밀렸대. 나부터 그 다음 등급이 되었거든... 처음부터 그 등급이라 생각했다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엄청 속상했어. 선생님이 미안해 하셔서 그 앞에서는 안 울려고 했는데 마음과 달리 눈물이 자꾸 나더라구. “처음부터 선생님이 석차를 잘 내시지” 하는 원망이 생겼어. 그리고 실수로 틀린 문제가 생각났고... “왜 하필 나부터

다음 등급으로 밀리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속상하고 밍고 짜증나고...

연구자: 속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재윤: 교무실을 터덜터덜 나와서 교실에 있는 친구를 불렀어. 힘이 빠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구들이 복도로 나왔고 “왜 그러냐?”고 묻는 친구 얼굴을 보자 울음이 막 터져 나왔어. 친구들이 내 근처에 왔고... 안 울려고 했지만...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애들이 위로와 농담을 하면서 나를 웃기려 했어.

연구자: 뭐라고 하던데?

재윤: “이 중에 그 한명이 있는 것 아니냐”...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모두 1등급 받자”... 그러자 “인원이 넘치니 너는 2등급 하라”고... 하면서 농담도 하고... 어떤 애는 “이그, 아직도 우냐?” 하며 웃기고 지나가고... “내가 인강을 확실히 듣고 수업도 잘 들어 선생님만큼 아주 잘 알아서 너 가르쳐 준다”는 등등... 친구들의 손길과 말들이 너무 고마웠어.

고등학생은 복잡한 관계적 역동 속에서 울고 웃는다. 친구로 인해 밀려난 등급 때문에 속상해 울고 농담을 통해 등급관련 위로를 받으며 웃는다. 재윤이는 친구로 인해 울고 웃으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울고 웃는 복잡한 관계와 상황이 또 힘들어지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접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은 끊임없이 머리를 맴

돌았다.

2. '무념'과 '상념' 사이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생각의 상당 부분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웹툰, 게임에 몰두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잡생각이 많다”는 가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4>

시험기간이지만... 새벽에 공부는 안 되고 잡생각이 너무 났어요, 견디다 못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잠을 잘 안자는 친구가 있어서(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어요. 아무도 내 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외로웠거든요. 공부는 해야 하는데 집중은 안 되고 도대체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기혐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지만 다행히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산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친구의 그 말이 엄청 용기를 주었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친구가 말했죠. 생각하면 괴롭고 지금을 벗어날 수도 없고... 생각 안하고 살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기” 가영이가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다. 가영이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편안했다. 생각이 많은 자신이 너무

산만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던 중이었다. 과거의 잘못부터 미래의 불안까지 가영이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대학입시 걱정은 물론 이후의 취업, 결혼, 사람들 간의 불신, 환경오염까지 가영이가 살아갈 날이 참담했다. 부모님의 말처럼 “그런 쓸데 없는 생각들을 다 접고” 공부에 몰두해야 하는데 떨어진 성적 탓에 부모님과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할 수 있는 한 방 문을 닫고 닫은 문만큼 마음도 열지 않았다. 생각에 지친 가영이는 “쓸데 없는 생각”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할수록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만 더 선명해졌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예민해져 다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생각에도 자신만 더 민감해졌다. 그러니 매사가 피곤했고 짜증스러웠다.

그러던 가영이가 자신만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영이 느낌에 “참 괜찮은 친구”도 마찬가지로임을 알게 된다.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닥친 일만 한다”는 친구의 말에 위로를 받는다. 상념에 시달리는 것이 자신만은 아님을 알게 된 가영이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고등학생에게 ‘생각’이란 ‘고민과 걱정’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생각은 ‘불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서 유발된 고민과 걱정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애써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했다. 차단의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당장 닥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닥친 시험공부를 기계처럼 해내는 일이 주어진, 외부에서 요구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인간인 아이들이 생각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자발적인 사유, 자유로운 생각의 막힘은 아이들에게 실존의 구속을 강요하는 일이었기에 고등학생들은 익명적 공간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토해냈다.

<5>

자살하고 싶다... 드링크제 엄청 먹고
심정지하고 싶다... 자살 고프다...

익명으로 게시된 위 문장들은 재윤이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일상을 나눈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자살관련 언급들이다. 익명의 사이버공간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힘듦, 즉 미래의 불안이나 갈등과 오해 등을 토해 내도록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기에 ‘날 것 그대로’의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자살’에 대한 언급이 회화적으로 표현된 것도 인상적이었다.

왜 그럴까? 짐작컨대, ‘자살’이라는 용어가 고등학생 사이에서 이미 ‘금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살’을 자주 언급할 만큼 청소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토설은 시험기간이나 성적을 받을 때 더 두드러졌다. 시험준비가 부족한 자신에 대한 비하감이 몰려오거나 타인과의 성적비교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살생각’은 더욱 부각되었다.

실존적 생생함이 “쓸 데 없는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 색채를 띠게 되니 아이들은 그 부정적인 것을 차단해야 했다.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몰두되면 자해 혹은 말로나마 부정적 공

격성을 풀어냈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것이 ‘무념’이었다.

‘무념’은 타인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다음 말을 들어보자.

<6>

재윤: 상영이가 경찰이 되고 싶어 하거든.
개는 경찰대학... 이런 데 안 가고 순경이 되고 싶대. 공부를 잘 못 해도 절대 기 죽지 않아. 그런 상영이를 보면 정말 행복해져.

연구자: 상영이 대단하다. 그럼 상영이는 시험을 위한,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공부하는 안 해?

재윤: 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다른 과목은 못 해도 주눅 들지 않아. 멋지지?

연구자: 그러네... 참 의지가 있네. 요즘 세상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재윤: 국어 기말시험에서 69점 맞았다고 자랑했어. 공부를 못 하는데 개가 그 점수 받은 건 정말 잘한 거거든. 나와 몇 친구가 ‘넌 할 수 있다고...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격려했지.

연구자: 상영이가 좋아했겠네. 차근차근 좋은 경찰이 되면 좋겠네.

재윤: 근데... 다른 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상영이의 기분에, 용기를 얻는데 찬물을 끼얹었어.

연구자: 무슨 일인데?

재윤: 우리의 말을 유심히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음... 근데 그 실

력으로 경찰이 될 수 있어? 경찰이 되려면 적어도 ... 그 실력으로는 절대 그 대학 못 가. ** 대학은 가야 하는데 거기는 몇 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아?”... 그 친구 말에 현타¹⁰⁾ 왔어.

친구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는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한다. 아이들은 상영이에게 마땅히 해줄 말을 찾지 못했다. 현실을 알려 준 그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상영이는 물론 상영이의 오른 성적을 축하하던 친구들도 머쓱해졌다. 재윤이는 “용기를 꺾는 사회”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지독히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어폰을 꺼냈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언급도,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듯 행동했다. 현실을 알려 준 그 친구의 말을 더 이상 머릿속에 담지 않으려는 듯 아이들은 음악을 듣고 핸드폰을 만지며 자리를 떴다. 모두 각자의 회피적 행동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무념’을 택했다. 이때 ‘무념’은 타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사유와 행동의 양식과 같았다.

3. ‘차단’ 속에서 ‘연결’을 찾는

타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른 하나는 ‘(타인을) 무시하는 일종의 사유

및 행동양식’이 그것이다. 신기하게도, 타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일은 곧 타인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변진다. 타인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기 마련이다. ‘주체-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에 성찰 없이 자신을 내어 맡긴다. 행동이 루틴하게 굴러간다.

무념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은 점차 타인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일을 불편해 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기간이 되면 ‘인사’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많다.

<7>

재윤: 시험기간에 썩 까는 애들이 많아.

연구자: 왜?

재윤: 몰라(뽀루통하게). 말을 하면 지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학교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 말 시켜도 안 하고.

시험기간에 예민해진 아이들은 타인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차단이다. 말을 섞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게 피곤하다. 시험성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공부한 것을 나누며 점수를 같이 잘 받는 것은 내신을 올리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 평가의 가치는 필기한 공책을 빌려주는 일도 꺼리게 만든다.

<8>

재윤: 진아가 노트 필기한 거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기꺼이 빌려주었어. 근데 진아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줌... 생각보다 과도하게 고마워했어.

10) ‘현실자각타임’의 준말로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연구자: 어떻게?

재운: 빌려달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워했어. 정중하다고 할 정도로?(말끝을 올린다)... 빌려준다니까 뭔가 보상을 꼭 하려고 하더라구. 나는 뭘 그 정도 가지고...했지만 그런 진아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안타깝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남의 노트를 빌리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못 한 것을 보완해 공부하는 것이 애들 사이에서 갈수록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연구자: 그래? 이유가 뭘까?

재운: 음... 노력한 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 같아.

재운이는 필기한 공책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내어준다. 그리고 과도하게 고마워하는 친구의 태도에 오히려 서글픔을 느낀다. 수업시간에 노트필기를 제대로 안 한 건 그 친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친구를 게으르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못 냈다고 보는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각자가 잘 하는 영역, 좋아하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인 양 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반면, 소현이는 재운이와 생각이 좀 달랐다. 소현이는 “빈둥빈둥 놀면서 시험기간이 되면 제 것인 양 노트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알미움을 토로했다. 소현이는 밤잠 안자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의 것을 별 노력 없이 말 한마디로 획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소현이는 그런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하다며 “그런 찝찝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기 것을 알아서 미리 관리하고 남이 거절하기 힘든 일에 “엉거 붙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현이와 재운이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다면, 두 고등학생의 관점은 어디서 달라졌을까? 부탁하는 친구가 어떤 존재였는가 달랐을 수 있다. 즉 그 친구의 평소 생활태도를 체험한 두 고등학생의 맥락이 달랐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트 공유’에 대한 두 고등학생의 지각이 달랐을 수도 있다. 지각과 맥락의 차이를 배경으로 밀어두더라도 차단과 거절, 공유와 연결의 현상이 고등학생에게 침예한 이슈임에는 틀림없었다. 더불어 그 침예함은 ‘경계’의 ‘범위’와 그 경계를 짓는 ‘방식’과 연관되었다. 관계적 경계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은 무척 달랐다.

한편, 시험기간에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고등학생들에게는 연결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연결은 전통적인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했다. 다음은 연구자가 관찰한 상황이다.

<9>

새벽 1시 37분이 되었는데도 컴퓨터 모니터에 창을 열어 놓은 몇몇의 고등학생들이 눈에 띈다. 카톡과 Zoom을 열어 놓은 재운이와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재운이가 모니터를 켜 놓고 각자의 공부를 한다. 그러다 서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카톡을 한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풀이를 알려주면서 어려움을 공유한다. ...(중략)... 재운이가 조는 것 같아 보

이자 한 친구가 “재윤아!”하고 이름을 불러준다. 그 소리에 재윤이가 다시 모니터를 쳐다본다. 아이들은 친구가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상의 만남 공간을 만들어 함께 공부한다. 그 만남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시험공부를 마치고나 자기로 마음먹은 재윤이 친구들은 한 명씩 모니터 창을 닫고 그 방을 나갔다.

고등학생들은 각자 공부하면서도 같이 있었다. 새벽까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상의 공간에 함께 머물렀다. 조는 친구를 깨웠고 모르는 문제를 물었다. 졸리거나 혼자 있고 싶으면 창을 닫고 그 공간을 떠났다. ‘차단’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전염병(COVID-19)으로 가상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고등학생들은 현실에 그것을 접목했다.

재윤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뮤지컬, 드라마, 웹툰이라는 물질과 자신을 연결했다. 물질은 객관적 실체만이 아니었다. 미래의 꿈을 연결했고 현재 상황을 연결했으며 심지어 겪어보지 못한 드라마 속 옛날을 그리워하며 현재 머문 아픔을 위로받았다. 재윤이는 그 속에서 용기를 얻기도, 우울해지기도 했다. 널을 뛰는 감정기복에 따라, 축 쳐진 어깨와 장난 가득 손짓이 웃음과 울음과 더불어 날마다 교차되었다. “용기를 주는 음악”에 맞춰 수험문제도 풀었다.

시험기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연결은 좀 더 본격화되었다. 시험이 끝나는 날, 재윤이는 친구들 다섯 명과 고기뷔페에 가서 스무 점시가 넘는 돼지고기를 “배터지게” 먹었다. 가영이는 ** 대학 앞에 진출해 자신들의 즐거움을 나누

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나와야만 미션에 성공하는, ‘방탈출’이라는 오락공간이었다. 가영이는 그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긴장과 스릴을 맛보았다. 시험공부로 밤을 샌 탓에 “졸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오락공간에서 탈출을 위한 미션으로 나온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가영이와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집에서 잠을 자는 대신, 밖에서 놀고 싶은 고등학생이었다. 비몽사몽 가영이도 그날 하루만큼은 시험점수를 잊고 친구들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었다. 함께 웃고 같이 소리치면서 시험의 긴장과 차단을 즐겁게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공유와 연결의 즐거움은 불안으로 이내 뒤덮여 버리기도 했다.

4. ‘확인’하고 ‘재확인’하고도

시험기간이 되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친구의 모습에서 재윤이는 화가 난다고 한다. 다음 상황을 보자.

<10>

재윤: (카톡 수신 소리가 울리자 카톡을 들여다보다가...) 애(친구)는 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왜 계속 물어보는지...(확인만 하고 카톡 답신을 안 한다.)

연구자: 그래? 왜 물어보는데?

재윤: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 앤데...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시간 나면 체크하네...(못마땅하다는 듯이 책상 위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는다.)

연구자: 뭐라고 하는데?

재운: 너 공부 많이 했어? 어디까지 했어?... 라고

재운이는 친구의 확인이 못 마땅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답을 해 줬는데 반복해서 그것을 물어보니, 공부의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교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이 싫었다고 했다. 공부 상태를 물어보는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재운이는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연구자가 재운이의 ‘감정과 반응이 너무 과민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재운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친구들의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자주 발현되는 “비교라는 불순한” 의도가 읽혀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가늠하는 존재가 지금의 고등학생 모습이라고 재운이는 말했다. 이때 기준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된다.

<11>

재운: 지연이는 매번 시험 개뿔봤다고...

징징해. 이젠 그 말을 믿지도 않아

연구자: 왜 그러는데?

재운: 몰라(약간 짜증난 듯 이해를 못 하겠다는 투로). 애들이 처음에는 지연이 말 듣고 진심으로 위로했는데... 그런데 시험점수나 성적표 받는 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좋아서 입꼬리가 싸악 올라가 있더라구. 입꼬리 올라간 것 보고는 가증스럽다고 하는 애들이 한 둘이

아니야. 시험을 볼 때마다 매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도대체 개는 왜 그럴까?

시험 후의 실수와 후회를 지연이는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며 힘들어한다. 친구들은 지연이를 위로한다. 하지만 시험점수를 받는 날이면 지연이는 딴 사람이 된다.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는 지연이의 얼굴에 기쁨이 묻어난다. 친구들은 “가증스럽다”고 표현한다. 재운이는 그런 지연이의 태도를 “잘난 척”,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표하기 위한 ‘관심 끌기’ 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우월함을 드러내고 타인의 관심을 끌어야 할까? 다음 상황도 보자.

<12>

재운: 학교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

연구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재운: 세계지리 시간에 시험 봤는데 처음에 ‘맞는 답’이라고 하셨던 걸 선생님이 나중에 ‘틀리다’고 정정하셨어.

연구자: 어떤 문제였어?

재운: 지명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외국 지명이고 발음상의 문제라... ‘쓰촨성, 쓰촨성’도 맞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훗카이도, 훗카이도’ 모두 ‘맞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틀릴까 염려했던 아이들이 환호했지. 근데 어떤 친구가 교무실에 가서 문제제기를 했나봐.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선생님이 다시 정정하셨고 애들이 난리 났었어.

연구자: 그랬구나.

재윤: 문제는 아이들이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말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어 버린 거지. 그 아이한테 실망스러운 애들이 한둘이 아니구.

‘교과서에 나온 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문제제기한 친구에 대한 원망은 물론 점수가 낮아지는 상황을 아이들은 속상해 했다.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이라는 실망감과 말이 달라진 선생님의 미움까지, 아이들의 감정은 널 뚝 듯 출렁였다. 아이들이 신봉하는 ‘정당함’의 개념도 뒤죽박죽되는 것을 보니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사태에 관한 해석이 참 복잡해 보였다. 다른 위치와 해석으로 인한 불안은 소통을 위해 확인을 거듭하는 상황을 낳기도 한다.

한편, 가영의 학교에서는 중간 과학시험에서 100점이 57명이나 나왔다. 평균이 85점을 훌쩍 뛰어넘어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자 선생님이 예고 없이 쪽지시험을 봤고 기말 과학 시험 평균이 30점이 되었다. 시험의 난이도가 조정이 안 되자 아이들의 거센 반발로 선생님도 곤란해 하셨다는 것이 가영이의 이야기였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영이는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상황, 자신, 타인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하지만 지속적 확인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도 한다. 재윤이의 한 친구는 시험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문제를 풀고 계속 검산에 몰두한 나머지 답안지에는 정작 표기를 못 했다. “너무 잘 하고 싶어 시간을 넘긴” 그 친구를 보고 아이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불안이 그 친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V. 해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고등학생이 체험한 시험관련 맥락을 중심으로 발견한 것들을 ‘문질빈빈(文質彬彬)’하였다. ‘문질빈빈’은 곧 ‘현상학적 환원’으로 고등학생의 시험관련 체험현상이라는 질적 맥락(context)이 선행연구 혹은 기존의 이론(text)과 어떻게 교차되는가(inter-textuality)를 살펴보는 것이다(조용환, 2012). ‘한 고등학생의 주관성(subjectivity)이 다른 고등학생의 주관성(subjectivity)과 연결(inter)되어 있다’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ity) 사유에 기초해 청소년인 고등학생의 시험체험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소통 및 교차를 시도하는 장이기도 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점을 논의하려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의 시험체험관련 현상의 맥락을 토대로 한 각 실존체에 대한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계슈탈트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다움’이라는 ‘본질’ 추구와 상황의 개선가능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고등학생이 체험한 시험관련 맥락은 “‘울음’, 그리고 ‘웃음’, ‘무념’과 ‘상념’ 사이, ‘차단’ 속에서 ‘연결’을 찾는, ‘확인’하고 ‘재확인’하고도” 었다. 행위로 기술된 맥락 속에서 고등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첫째, ‘울음’, 그리고 ‘웃음’이다. 아이들은 시험관련 상황에서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관계'로 서러워했고 좋은 내신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했으며 시험을 당장 잘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울었다. 방대한 공부 양에 버거웠고 성적경쟁으로 “친구들이 미워질 때” 울었다. 하지만 눈물 나는 상황에도 웃음은 존재했다. “다른 친구들이 미워지고 잘 못 하기”를 바라는 ‘경쟁적 관계’ 속에도 ‘위로’와 ‘존중’은 있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 속에 서로의 ‘진정성’을 느낄 때 고등학생은 웃을 수 있었다.

둘째, ‘무념’과 ‘상념’ 사이이다. “잡생각이 많은” 고등학생들은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닥친 일만 하거나” 스마트폰, 컴퓨터로 웹툰, 게임에 몰두한다. 고등학생에게 ‘생각’이란 상당 부분 ‘고민과 걱정’을 의미하였기에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안 해야 했다. 고등학생들에게 ‘무념’은 타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처를 피하기 위한 사유와 행동의 양식이었다. 외부로부터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시험에 대한 공부를, 생각 없는 기계처럼 해내야 했지만 자발적인 사유, 자유로운 생각의 막힘은 실존의 구속을 강요했다. 구속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고등학생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익명적 공간에서 어렵지 않게 토해냈다.

셋째, ‘차단’ 속에서 ‘연결’을 찾는다. 연결은 시험기간에 공부를 같이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의 연결은 전통적인 시공간, 몸의 경계를 뛰어넘어 물질을 통해 입체적 모습으로도 현상했다. 한편, 시험기간에 예민해진 아이들은 타인이 보이지 않는 듯 행동하기도 한다. 인사를 하고 말을 섞는 일이 피곤한 고등

학생들은 에너지를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타인에게에는 차단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물질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관계적 연결은 과거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다. 관계적 존재인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가 차단될 때 물질로 관심을 돌리지만 (Klein, 1932)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대중음악, 뮤지컬, 드라마, 웹툰이라는 물질과의 상생을 통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단’하고 또 ‘연결’했다. 가상공간(virtual)에서, 고등학생들은 ‘홀로 있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머물게 된다. 게다가 ‘차단’과는 다른 ‘연결’의 동시발생은 시험이 끝나는 날, 아이들의 몸과 몸의 직접적 접촉으로 전환된다.

넷째, ‘확인’하고 ‘재확인’하고도 이다. 시험기간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친구들에게 확인하곤 했다. 공부의 기준이 타인이 된 청소년들은 확인과 재확인을 통해 위로를 찾고 우월을 가늠한다. 확인, 재확인 은 타인 속에서 자기 위치를 비교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준비의 정교함을 넘어 타인보다 우월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경쟁의 다른 이름 속에서 청소년들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익힐 여유가 없었고 그럴수록 혼자가 되었다. 고립된 청소년들은 차단과 경쟁을 더욱 굳혀 나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맥락과 의미의 파악에서 나아가, 각 상황에서 청소년이 한 행동에 부여한 현상학적 의미와 더불어 생활세계에서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체험된 몸, 체험된 시간,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 체험된 물질로 구성된 실존체를 좀 더 깊게 분석할

표 1. 고등학생이 겪은 시험 관련 체험의 맥락과 의미

맥락	의미
울음	부담, 미움, 불안, 압도, 소홀
웃음	격려, 진정성, 위로, 존중
무념	회피, 폐쇄
상념	불안, 걱정, 고민
차단	(에너지)저장, 무시, 자폐, 이기
연결	(시공간)횡단, 살아있음, 접촉
확인	비교, 우위, 불안
재확인	비교, 불안, 우월, 위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체험된 신체(lived body)는 ‘경직’되었고 ‘자폐적’이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 안 하려 했고 할 일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다. 눈앞에 당장 닥친 일을 해야 했기에 시험기간에는 소진되어 사람들과 말을 섞기도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했고 무기력했으며 화도 났다. 때로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자해’도 했다. 고등학생들은 웃음을 잃어갔고 감정을 안 느끼고 살고 싶어졌다. ‘입시’라는 목표를 위해서만 끌려가는 현실 속의 주인이 되지 못한 몸 때문에 아팠다. 청소년들의 입시관련 압박감과 큰 스트레스(김성봉 외, 2011; 김명자 외, 2002; 박영주, 정혜경, 2002; 이은희, 2009; 신현숙, 송종화, 김현주, 2005)의 실체가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직’, ‘자폐적’ 신체성은 ‘침범’과 ‘차단’된 관계성과 연결되었다. 체험된 관계(lived relationship)는 불안 때문에 ‘배려’보다는 ‘경쟁’

을, ‘불신’적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함께’를 지향하는 ‘배려’에 비해 ‘선점’을 표방하는 ‘경쟁’은 도구적, 기능적 연관이다(Heidegger, 1998).

믿지 못하니 ‘안전’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다. ‘차단’을 추구하면서 ‘차단’을 힘들어하는 모순적 모습도 보였다. 그런 까닭에 힘들었던 시험이 끝나면 ‘혼자’ 하는 잠보다 ‘함께’ 하는 ‘놀이’를 택했다. ‘남보다’ 잘 봐야 하는 시험이지만 등급이 정해 놓은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며 사이버 상에서의 ‘만남’을 통해 ‘함께’를 지향했다. 노트를 ‘공유’하고 성적 떨어진 친구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접촉’했다. Porges(2011)에 따르면, 인간이 ‘안전감’을 느껴야 ‘사회참여체계(social engagement system)’가 활성화되어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연결’의 중요함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실에서는 청소년들 속에 가득 찬 “경쟁과 비교는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거나 성찰할 기회를 차단하고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중시킨다. 불안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 체험을 하기는 어려워”(신현정, 2019) 청소년은 이 상태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 더구나 학습과 규칙 속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신수희, 2018) 아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학업위주의 생활(이수진, 2019)이 청소년에게는 관성이 되었기에 생각과 감정을 애써 차단하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때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접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습적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교사, 친구 간 관계가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는 여

지는 별로 없다. 웃음 띤 얼굴보다 낯선 비판이 서로 간 지배적인 관계성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공간(lived time/lived space)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되었다. 게임 등 사이버상의 물질들과 ‘소통’하거나 그 물질을 ‘매개’로 친구들과 만났다. 고등학생에게 체험된 물질(lived material)은 ‘매개’와 ‘대체’였다. 믿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실망을 기제로 전환하기에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모두 물질이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사이버 상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시험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상의 시공간은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에게 체험된 시간성(lived time)은 지금의 결과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불안’, ‘촉박’, 기대와 희망을 잘라버리는 부정적 자각이 지배적이었다. 갇혀 펼칠 수 없는 ‘구속’된 공간성(lived space)이 고등학생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 실존의 모습이었다.

그림 1은 고등학생이 실존적 상황에서 지각한 게슈탈트(gestalt)¹¹⁾를 가시화한 것으로 게슈탈트 중심의 해석을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의 지각된 실존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지만 긍정적인 의미 역시 존재했다. ‘위로, 접촉, 공유, 만남, 교류, 기쁨’ 등의

긍정적 의미가 어려움과 공존했다. 이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청소년을 볼 때, 스트레스 속에도 긍정성, 안전감을 찾을 ‘관계’를 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신현정, 2019; 한세영, 유설희, 2019; Cozolino, 2006; Geller & Porges, 2014).

둘째, 중복, 반복적으로 표현된 ‘불안, 제한’의 의미는 고등학생에게 그만큼 절박하고 당면한 현실이다. 따라서 그것을 지양하는 방식의 교육적 실천이 제공되어야 한다(김성봉, 오옥선, 김선미, 2011).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입시라는 시공간, 관계가 주는 한계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입시로만 수렴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체험의 확장을 시도하도록 좀 더 큰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을 지켜봐야 한다. 따라서 불안 때문에 상황과 자신, 타인을 ‘확인’하고 ‘재확인’하지 않도록, 그것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어른의 긍정적 눈과 손이 필요하다. 감수성이 풍부한 관계 조성과 더불어 불안, 고민으로 가득 찬 사유가 아닌 자기의 존재물음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조용환, 1997; Heidegger, 1998).

셋째, 고등학생들은 ‘더 나은 상황과 삶’을 만들기 위해 ‘탈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 울음이 슬픔이나 속상함에 국한되지 않고 위로와 우정으로 확장되었으며 가상공간 역시 응축된 차단된 장소가 아닌, 연결을 위한 매개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홈 패인 매끄러운 공간’(Deleuze, 1968)을 따라가기만 하는 소극적, 수동적 청소년들이 아니라 실험하고 변형하며 매끄러움을 벗어나려 ‘고투’하는 주체들

11) 게슈탈트(gestalt)는 주체(개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고 구성하여 지각하는 형태, 형상을 말한다(Oaklander,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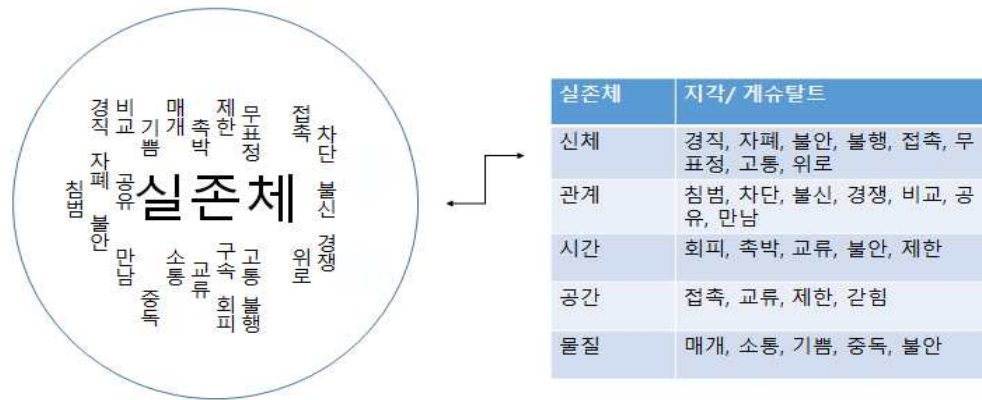


그림 1. 고등학생의 시험관련 상황 지각/개슈탈트

이었다. 온몸으로 소통하는 청소년이야말로 ‘기여(commitment)하고 탐험(exploration)할 수 있는’(Erikson, 1963) 가능성덩어리들이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현상을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Deleuze(1968)의 말을 빌려, 입시라는 하나의 수목적 목표를 넘어서서 기존과 다른 마음과 태도, 행위를 통한 리즘적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에게 자신을 ‘열어 밝히는’ 현상학적 태도를 요청한다.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실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이들을 둘러싼 성인들이, 경쟁을 조장하던 길을 멈추고 성찰적 태도를 가질 차례다. ‘겨루어 이기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깊이 숙고하고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더하여 시험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실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 교사, 부모 등 입시관련 행위 주체들의 행동을 드러내고 그 행위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이에 다음 연구에

서는 주체 간 현상학적 의미를 교차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주체들 간 행위의 의미에 대한 상호주관적 교차와 역동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입시와 시험에 관한 풍성한 상호텍스트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길선 (2020). 소득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불평 등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 국민일보 (2020. 6. 1). 청소년·고학력자 극단적 선택 늘었다... OECD 자살률 1위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 (2002).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2), 5-42.
- 김성봉, 오옥선, 김선미 (2011). 고3 수험생들의 입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청소년

- 년학연구, 18(3), 153-177.
- 김안국, 임 언, 최지희, 유한구, 김기현 (2011).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박영주, 정혜경 (2002).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대처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3-61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 18개월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자영 (2020). 여자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의 의미. 청소년학연구, 27(1), 55-83.
- 신수희 (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숙, 송종화, 김현주 (2005). 대입수험생의 학업스트레스, 비관성 및 사회적위축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연구, 28, 121-142
- 신현정 (2009). 치료놀이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신현정 (2019).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탐색: 감정과 행동에 대한 뇌신경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발달지원 연구, 8(3), 1-22.
- 연합뉴스 (2019. 5. 20). 청소년 가장 큰 고민은 '직업'.
- 오마이뉴스 (2020. 5. 31).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
- 이동귀, 함경애, 배병훈 (2016). 청소년의 자해 행동: 여중생의 자살적 자해와 비자살적 자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71-1192.
- 이수진 (2019).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9).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9). 입시스트레스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력요인의 역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2), 24-37.
- 이장현 (2016). 청소년지도사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방안(인성이 경쟁력이다). 한국청소년 학회학술대회 자료집, 79-81.
- 임성은 (2019).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책 네트워크 분석. 서울도시연구, 20(1), 97-116.
- 조보행 (2013).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분석.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7). 사회화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조용환 (2015). 질적 연구: 무엇이며, 어떻게. 부산대학교 대학원 질적 연구 워크숍 자료집.
- 조용환 (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신물질주의.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청소년 자해, '죽음'이 아닌 '살기위한' SOS!! 청소년 상담이슈페이퍼. 제2호.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의 고민- 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세영, 유설희 (2019).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소속감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1), 69-89.
- 황갑진 (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사회과학연구*, 13(3), 69-92.
- Cozolino, L. J. (2006). *The neuroscience of relationships: Attachment and the developing social brain*. NY: Norton.
- Deleuze, G. (2004). 차이와 반복. 김상환(역). 서울: 민음사. (원본 발간일, 1968)
- Erikson, E. (1963). *Eight ages of man, Childhood and Society*. Nova York: Norton and Company.
- Geller, S. M., & Porges, S. W. (2014). Therapeutic presence: neurophysiological mechanisms mediating feeling safe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4(3), 178-192.
- Haney, E. M., O’Neil, M. E., Carson, S., Low, A., Peterson, K., Denneson, L. M. & Kansagara, D. (2012). *Suicide risk factors and risk assessment tools: A systematic review*. VA-ESP Project.
- Heidegger, M. (1998). 존재와 시간. 이기상(역). 서울: 까치.(원본 발간일, 1979)
- Husserl, E. (1997). 경험과 판단. 이종훈(역). 서울: 민음사. (원본 발간일, 1938)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garth.
- Oaklander, V. (1978) *Windows to our children*. NY: The Gestalt Journal press.
- Porges, S. W. (2011). *The Polyvagal theory: neurophysiological foundations of emotions, attachment, communication, and self-regulation*. NY: Norton.
- van der Kolk, B. (2016). 몸은 기억한다. 제효영(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본 발간일, 2014)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olcott, H.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 M. LeCompte, W. Millroy, and J. Preissle (Eds.) (1992).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3-52. NY: Academic Press.

1 차원고접수 : 2020. 10. 09.

수정원고접수 : 2020. 12. 22.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school tests for a high school student

Shin, Hyunjung

Dep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lived experience of school tests for the high school student based on the many pieces of research have been said of high school students' unhappiness in Korea. In other words, this study needs to reveal the phenomena related to the tests that high school students have had to conduct, 'as it is' concretely, directly, to try to change these situations. Findings are as below through research of one and a half-year collecting datum and analysis for a high school student's test related experiences and so on. Contexts on the high school students' test are including 'crying' and 'smiling' 'between' 'no thought' and 'all thought', 'seeking' 'connection' in the 'disconnection', 'confirm' and 'reconfirm'. Looking into the deeper meaning from the context, 'crying' means 'burden, hatred, anxiety, overwhelmed, not valued', but 'smiling' means 'support, authentic, console, respect'. 'no thought' is 'avoidance, close', 'all thought' is 'anxiety, worry, concern'. 'disconnection' is '(energy) storage, ignorance, autistic, selfish' but 'connection' is 'crossing, being alive, contact'. 'confirm' is 'comparison, anxiety' and 'reconfirm' means 'comparison, anxiety, superiority, consolation'. Existentials(time, space, body, relationship, material) are also connected very closely, 'rigid' and 'closed' body is related to 'disconnected' relationship. Time and space are selected to 'avoidance' and there is a negative awareness of 'anxiety', 'currentness' of thinking that the future is depending on this moment's test results. 'closed' space is also the negative feature of being and perceived material is 'media' and 'replacement'. The cues for changes through this study are to seek for the positive meanings even though in the negative meanings, so 'safe relationship' needs to be constructed. Also, 'reinterpretation' should be provided to high school students in difficult situations accompanying 'anxiety and restriction'. Chances of commitment and exploration of them should be given for a better life. Therefore, adults being with adolescents need to get an attitude toward self-reflection. Realize 'coming together' is more important than 'competition'. Practice it gradually with changing attitudes.

Keywords: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test, anxiety, competitio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study